로컬플러스

김제교월동, 1일 동장제 '호응'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는(동장 박상문)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일 동장제」를 26일 운영하였다.

교월동은 이번 1일 동장으로 교동 향교마을의 유복동씨를 임명하고 이날 하루 동안 업무보고 청취 신청사 신축현장 및 주요사업 대상지 방문 등 1일 동장으로서의 직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동장 체험을 마친 유복동씨는 "비록 하루 동안의 체험이었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 이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과 행정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매월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일 동장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

정읍시는 지난 26일 「2016년 정읍시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공모를 통해 응모된 지원자 중 선발된 31명에게 '시민 SNS 서포터즈'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서포터즈들은 당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될 정읍시 SNS 서포터즈는 지역 내 각종 행사와 축제, 공모 및 감동 스토리 등을 널리 전파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적·자연적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전파하여 제2의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불편사항 및 민원요소를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등 행정사각지대를 최소화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 시장은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소통창구인 SNS(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쌍방향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문화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소통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서 백산파출소 개소식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지난 25일 강현신서장을 비롯하여 지역인사,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산파출소 개소식을 가졌다.

백산파출소는 지난 2003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대 신설에 따라 서림 지구대로 편입. 백산치안센터로 운행해 왔다.

그러나 백산면은 초·중·고등학교가 4개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발생 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백산면들의 숙원과 풀뿌리 치안을 확보하려고 인력을 보강하여 파출소 근무체계로 전환되었다.

파출소 전환근무에 따라 순찰활동이 증가하여 범죄예방과 주민 친밀도 향상은 물론 신속한 사건 처리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안과 경계지역인 김제시, 정읍시가 연결된 목 지점으로 범죄발생시 인근경찰서와 유기적인 근무 협조체제가 강화 되는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주민 치안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는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미래비전 연구용역 워크숍을 개최했고 국·단 소장과 전문가, 시민, 공무원, 연구진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 미래 연구용역 워크숍

전문가·시민 등 150명 참석… 난치병 R&D허브 구축 등 추진과제 제시

정읍시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 수립과 지속적 성장대응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열린 공감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 워크숍에는 국·단소장과 전문가, 시민, 공무원, 연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산업과 도시개발·환경, 문화·관광, 농업·농촌, 교육·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전략과제의 세부내용 설명을 청취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기관은 난치병·항노화 R&D허브 구축과 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 구도심 활성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 스토리텔링사업, 미래를 여는 유비쿼터스-에코시티,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타운 구축, 선진 농업 시스템 조성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용역기관 연구원과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리더 시민 등 관계자들은 각자의 분야와 관련, 열띤 토론을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의견은 '정읍시 미래비전 추진방향에 적합한 아이템 발굴' '지역현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과제 도출' '시대 트렌드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 '정읍을 대표할만한 랜드 마크 제시' '정읍시, 무성서원 일원 확대발전' '농생명 기반 아이템 발굴'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부합하는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등이다.

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보완 재검토 작업을 거쳐 부문별 중장기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방위·응급처치 교육강사 15명 위촉

분야별 전문가 시민교육

정읍시가 지난 26일 민방위대원과 생활민방위교육과 응급처치 전도사교육 등을 실시할 강사 15명을 선발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강사들은 지난 1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지원자 16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강의평가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시는 시민의 생명존엄과 안전한 삶의 실천을 위한 민방위교육의 슬로건을 '한 생명이라도'로 정하고,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선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 6천270명과 주민 3천710명 등 총 1만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시작해 10월말까지 실시한다.(※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5월 10일부터 5월 31까지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대원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또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민방위 읍·면·동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시 재난대비 민방위 긴급구조 훈련장에서 응급처치 전도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축제 기간에는 중앙로 일대에서 자율참여교육으로 안전거리축제 캠페인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갑작스런 뇌졸중과 교통사고 등으로 심정지 사고발생 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생활민방위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구도심·공원 LED로

가로등 160기 교체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구도심을 관통하는 신풍길 주변과 시민체육공원 등 시내권 주요 공원의 어두운 공간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최신 LED가로등 불빛으로 환하게 탈바꿈 시켰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중심지인 서독안경원에서 현대A까지 기존 메탈 가로등 60기를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시민체육공원 등 시내권 주요 공원의 가로등 100기를 LED램프로 교체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은 "LED는 타 광원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전력난 해소와 전기요금 절약, 가로등 유지관리에 재정적 절감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면서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신규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시, LED 광원과 고효율 조명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ED가로등 설치사업은 야간경관 개선과 밤길 안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내권 주요 공원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인재 양성 후원 '훈훈'

오채용씨,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김제 청하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오채용씨가 지난 25일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이건식)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오씨는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대신마을에 태어나 울산 김제향우회장을 역임하고 청하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울산에서 자동차와 건축용 볼트를 생산하는 상희금속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에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탑 표창패와 2008년 2월 기업경영에 헌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은바 있으며 1988년 1월에 상희금속공업사를 시작으로 28년간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운 길(기술인력부족, 자금난, 대기업규제)을 겪었지만 정직과 성실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범성실납세자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건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김제시민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겠으며,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며,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신년인사회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1/4분기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가 지난 26일 협의회장, 의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컨벤션 웨딩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이영식 협의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 반세기 넘게 지내왔음에도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통일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역설했다.

또 이 협의회장은 2016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함과 동시에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 평화통일 어울림 마당, 중·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 벨 본선대회, 통일안보 강연회, 통일염원 풍선 띄우기 개최 등 끊임없는 통일운동 확산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오는 5월 6일부터 3일 간 열리는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에 민주평통 협의회에서 평화통일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에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의 친구, 친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주문했다.

/부안=이옥수기자